

술 消費量 매년 增加

· 쌀막걸리가 지난 7일 첫선을 보였다. 이에 따라 1인당 飲酒量이 해마다 늘어 나는 가운데서도 쇠퇴일로를 견딘 막걸리의 인기가 상당부분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난해의 경우 20세 이상 남자 성년인구 한 사람당 평균 술 소비량은 소주 2홉들이 1백 36병, 맥주 4홉들이 31병, 막걸리는 2홉들이 87병에 이르고 있다. 지난 70년에 비해 소주와 맥주는 1.8배로 늘어났으나 막걸리는 7되가 늘어난데 그쳤다.

· 그러나 약주와 청주의 1인당 소비량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주와 고량주를 비롯한 기타 주류의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결국 1인당 飲酒量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고 있음을 나타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애주가들이 마셔버린 술값은 지난해의 경우 2천 8백 67억원(출고액 기준)에 이르러 지난 70년에 비해 만 6년동안 3.8배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그것이 3천 6백 억원을 웃돌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지난해 술 소비액은 8백만원짜리 20평형 아파트 3만 5천가구를 지을수 있는 돈이다. 공전의 아파트 부음을 타고 올해 국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가 기껏 6만가구에 불과하니까 연간 총 아파트 건축비의 절반 이상을 술로 마셔버린 셈이다.

· 수량을 기준으로 본 소주 소비량은 지난 6년간 115%, 맥주는 109%씩 증가, 같은 기간의 실질 GNP 성장폭 84%를 훨씬 앞질렀고 75년부터 선보인 국산 양주 역시 연간 2배의 증가 속도를 보인 반면 막걸리 소비가 25% 늘어난 것을 비롯, 약주 청주등도 소폭 증가에 그쳐 주류소비 패턴이 맥주, 소주, 양주 중심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고급주를 찾는 경향이 많아졌고 大衆酒의 경

李

(韓國 産業研究所)

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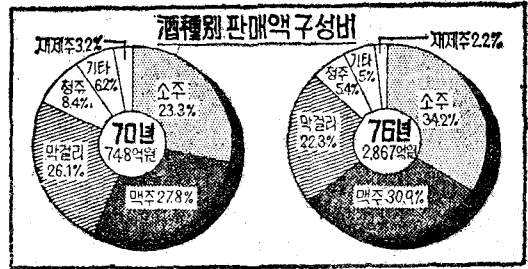
奎

우에도 뒷박으로 퍼서 파는 傳來의 술보다는 위생처리가 잘돼 있고 마시기에도 편한 규격 품쪽으로 애주가의 기호가 기울고 있는데다 음주 취향이 전반적으로 西歐化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맥주의 경우 70년대에 들어 지방의 소비층 가율이 서울등 대도시를 앞질러 전체 소비량 중 서울 지역의 비중이 지난 70년 50%에서 지금은 38%로 낮아졌으며 가정에서의 소비도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산 위스키 역시 수요가 급증, 지난해 7백 ml들이 40만 6천병이 팔리는데 이어 올들어 10

월 말까지 그 두배에 가까운 70만 6천병이 나갔으며 포도주를 비롯한 양주형태의 순수 과실주도 인기를 모아가고 있다. 다만 국산 위스키는 워낙 값이 비싸서인지 전체의 80%가 서울에서 팔리는 局地 소비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酒種別 소비량

<금액 단위는 억원>

구 격 및 단 위	70년		76년		수량증가율 (%)	77년추정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막 걸 리	20l 천달	60,659	196	76,019	640	25.3	79,820	745
약 주	20l 천달	628	6.7	667	15	6.2	580	14
맥 주	640ml·병	133,832	208	279,306	887	108.7	337,960	1,181
청 주	1.8l·병	10,789	63	10,885	153	0.8	13,170	204
소 주	360ml·병	549,478	211	1,180,038	975	114.7	1,298,042	1,244
고 량 주	250ml·병	3,256	2.8	14,740	32	352.7	17,098	41
제 제 주	700ml·병	17,928	24	12,891	61	▽28.1	17,016	88
기 타	kl	66,131	37	120,871	104	82.8	130,540	124

소주는 서울등 도시지역에서 주로 소비되는데 반해 막걸리는 80% 이상이 지방 및 농촌 지역에서 팔리기 때문에 서로의 소비계층이 다른데다 소매값이 증진 밀가루 막걸리보다 50% 비싸게 책정됨으로써 수요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그러나 소주와 쌀막걸리의 각축에도 불구하고 주류소비의 高級酒化 경향은 계속될 것 같다는 업계의 전망이다. 맥주의 경우 그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고는 하나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작년에 4홉 들이로 7.7병에 불과 西獨 227병(74년) 美國 124병, 日本 54병에 비해 엄청나게 뒤지고 있어 소득 향상과 酒種간 소비대체에 따른 판매 신장의 여지가 아주 크

다는 것이다.

맥주는 稅率이 워낙 높아 값이 비싼것이 소비신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4홉들이 병당 출고가 380원중 세금을 제외한 판매원가는 124원에 불과하다. 국산 위스키 역시 7백 ml들이 병당 출고가 5,456원중 판매원가는 고작 1,459원.

지난해 술 소비액중 소주가 가장 높은 34.2%를 차지했고 맥주는 30.9% 막걸리가 22.3% 순이었다.

지난해 酒稅收入은 70년의 4.3배인 929억원에 이르렀으며 이중 稅率이 높은 맥주가 4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주는 211억원이었다.